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3/03 월요일

아침의 누림**벧전 4:17**

17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벧후 3:12

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벧후 2:3-9

3 그들은 탐욕을 품고서, 지어낸 말로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도 속히 닥칠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5 또한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호하셨습니다.

6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그 두 도시를 멸망시키시어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 불법적인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 방식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뜻을 구출하셨습니다.

8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은 그들 가운데

정착하여 살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날마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9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시련에서 구출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이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중요한 항목들 중의 하나로서 반복하여 언급된다(벧전 2:23, 4:5-6, 17, 벧후 2:3-4, 9, 3:7).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벧후 2:3-4) 구약 시대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거쳤다(5-9 절). 신약 시대에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벧전 1:17, 2:23, 4:6, 17)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벧후 3:10). 그날은 천년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 후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벧전 4:5, 벧후 3:7), 하늘들과 땅은 불타 버릴 것이다(10 하, 12 절). …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심판의 결과는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며, 또 어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씀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벧후 3:13). (베드로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11, 10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서 4 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황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게 될 것인데, 이렇게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주었다(24-25 절). 다니엘서 4 장 26 절은 이어서 “그 나무의 뿌리등걸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벨사살은 술에 취한 채 명령을 내려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내오게 하였는데, 이것은 왕과 그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려는 것이었다(단 5:2-4).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사용된 그릇들을 가져다 우상들에 경배하는 데 사용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것이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며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등잔대 맞은편 왕궁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단 5:5 상). 다니엘은 글자를 읽고 해독하기에 앞서, 벨사살에게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 장에서 겪은 체험을 상기시켰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교훈으로 여겼다. …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고 교훈을 배운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벨사살은 그 교훈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어야 했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따라서 다니엘은 그에게 “그런데 그 후손이신 벨사살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낫추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늘들의 주님이신 분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셨고 …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5:22-23)라고 말했다.

다니엘서 5 장 25 절부터 28 절까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독하는 것을 본다. 쓰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25절)이었다. 그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시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26-28 절).(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4 쪽, 메시지 7, 47, 50-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7.

3/04 화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1:17

17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사 43:7

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사 11:2

2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께서 머무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시 86:11

11 오, 여호와님!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렵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잠 1:7

7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건만 어리석은 이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잠 3:5-10

5 너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분께서 너의 길들을 곧게 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8 이것이 너의 몸에 치료제가 되고 너의 뼈에 활력소가 되리라.

9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10 그러면 너의 참고는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 통은 새 포도주로 넘쳐 나리라.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자신이 성취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궁전은 거대했다.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교만해졌다. …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느부갓네살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관하여,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 그분의 손을 막거나 /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단 4:35)라고 말할 수 있었다. 다니엘서 4 장 37 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주님에 관해 계속해서 “그분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를 낫추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체험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교훈을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를 입었다. (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벨사살과 그의 대신들이 흥청망청하는 동안, 메디아 군대가 성에 다가오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독하자 곧 메디아 군대가 성과 궁전으로 진입했고, 벨사살은 살해당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서 5 장 31 절은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육십이 세가량이었다.”라고 끝맺는다. 이로써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벨사살에게 닥친 상황을 보고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실 때 그것을 매우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교훈이라도 경시한다면 해를 입게 될 것이다.(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51-53 쪽)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심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의 고난에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된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주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날부터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존중했다. 이것은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잠 1:7, 9:10, 15:33 상).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그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을 것이다(2:4-5).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8:13).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날이 늘어나지만, 악인들의 연수는 줄어들 것이다 (10:27). 올곧게 행하는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자기 길이 비뚤어진 이는 그분을 멸시한다(14:2).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으니, 그의 자녀들은 피난처를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원천이며, 사람을 죽음의 옮무에서 벗어나게 한다(14:26-27). 여호와를 경외하며 얻은 적은 것이 많은 재물을 얻고도 분란한 것보다 낫다(15:16).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풍성하다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가 주는 교훈이며, 겸손하면 존귀가 뒤따른다(잠 15:33). 자애와 진리로 죄악은 속죄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들은 악에서 떠난다 (16:6).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고, 그런 사람은 만족하게 지내며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19:23).

(잠언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 15-16 쪽, 메시지 3, 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잠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3.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은 아니다. 신성한 통치는 또한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기본 구조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서들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 서신서들의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서 사실상 한 장 반만이 생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1:1-2:11). … 게다가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 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그 다음으로 베드로후서에서 1장 전반부와 3장 마지막 절이 생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우리는 베드로전후서의 매우 중요한 이 부분에서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을 본다.(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1-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운행하시는 것을 본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본다. 이 절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적용을 계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수행하시려는 삼일 하나님의 운행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3/05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4-5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벧전 1:1-5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

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4 곧 죽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세 가지 요소, 곧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적용으로 구성된다. 이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리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생활을하게 된다. 우리는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며,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결과이다. 더 나아가 이 구원 안에는 씨 곧 썩지 않을 씨가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 장의 간단한 개요이다.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 장 1 절부터 11 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거듭나게 된 후에 우리는 이제 갓난 아기들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2 절). 1 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뜻인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에 동참하고 이 구원을 누려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을 필요가 있다.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한 보석들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을 살아 있는 돌들로 언급한다(벧전 2:5). 이 돌들은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이 집은 거룩한 제사장 체계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벧전 2:5) 한편으로 이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어떤 것이다.

물론 이 영적인 집은 단체적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처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즉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단체적인 방식으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을 포함하여, 베드로전서 1 장과 2 장 1 절부터 11 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책의 중심 초점을 본다. 우리는 이 초점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그럴 때 이 책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이 초점에서 빗나가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초점은 인체의 심장에 비유할 수 있다. 심장을 손상해 가면서 몸의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엄지발가락이나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어도 여전히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없다면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심장’인 중심 초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2-4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5;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4, 6 장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왜냐하면 육체에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2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여러분이 과거에 이방인들의 욕망을 따라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향락과 불법적인 우상숭배를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4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흐름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5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께 날날이 진술하게 될 것입니다.

6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들에서 다룬 첫 번째 기본 항목은 삼일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임을 말해 준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서두에서 삼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벧전 1:2)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됨과 그분의 피가 뿌려짐을 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3/06 목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4:14

14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3:4

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벧전 4:1-6

1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거듭나게 하셨고(벧전 1:3),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그 영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본다.

베드로는 또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시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 이 사실은 베드로후서 1 장 4 절에 나오는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다. 이 절에 따르면,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는 또한 그의 서신서들에서 우리의 뜻이신 삼일 하나님께 동참하는 길을 밝혀 준다. 그 길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과 관련되며, 마음에 숨겨진 이 사람은 우리의 영이다(벧전 3:4).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우리의 영에 관하여 많이 말하지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우리 사람의 영은 우리가 우리의 뜻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수단이다.

베드로전서 4 장 14 절에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다.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에 관하여 말한다(벧전 1:11). 마음에 숨겨진 사람인 우리 사람의 영과 영광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우리의 뜻이신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한 수단이다.

베드로전후서의 구조는 삼일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의 뜻이 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영광의 영이신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을 누리도록 하신다.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신성한 영과 동역하고 신성한 영께 반응하는 것이다. …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있는 다른 모든 항목을 연구할 때 이 서신서들의 기본 사상과 기본 구조를 확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풍성해질 것이며 매우 풍성하고 완전하고 상세한 방식으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유다는 모두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과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께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 서두에서 신성한 공급에 관하여 말한다. 그는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심지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1 장에 따르면, 신성한 공급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만이 아니라 신성한 빛도 준다(19 절).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 끝에서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벧후 3:18)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은 진리, 곧 그분의 전 존재의 실재와 같다. …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많은 항목을 다루지만, 그의 서신서들의 기본 구조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생명이 자라, 또한 생명의 성장을 통해 삼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며 강하게 되고 터가 튼튼하게 된다는

것이다.(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28-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2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9장

3/07 금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3:15-16

15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또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16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식하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못 풀이한 것처럼 그 부분도 잘못 풀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벧후 1:2-4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행 2:36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행 3:13, 15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15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행 10:36

3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심장은 거듭남과 구속과 적용을 포함한 삼중 구원을 수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운행이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됨으로써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께 거처를 제공하고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3-4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성도들이 베드로전후서와 유다서에 다루어진 여러 항목 때문에 이 서신서들의 기본 구조에서 빗나갈까 봐 염려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항목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베드로전후서의 기본 구조는 삼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 삼중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게 하셔서, 그분은 거처를 얻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사상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또한 자기가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벧후 3:15-16)라고 말한 것이다. 바울 또한 우리가 주님을 먹고 자라 영적인 집으로 건축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 밝혀 준다. 그러므로 이 두 사도 모두 동일한 것을 다소 다른 용어로 전하였던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동일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소망은 … 우리 중 누구도 신약에 계시된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이다. (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4-45 쪽)

바울도 그의 글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울의 글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글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모든 믿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징계하는 심판에 관하여 언급하는 면에서 그러했다. … 이와 같은 추천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가! 비록 고린도 사람들이 분열적인 선호에 따라 베드로와 바울을 나누려고 했을지라도(고전 1:11-12), 베드로는 바울을 추천하면서 바울도 자기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바울의 글이 잘못 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똑같이 중시되어야 하며, 구약과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신약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갈 2:11-21).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과 바울과 자기 자신 같은 초기의 사도들이 비록 일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와 말하는 방식과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법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고후 3:8-9, 4:1)에 참여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역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하여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백성 안에 그분 자신을 유일한 생명의 몸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 곧 충만으로 완결될 것이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14-1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3/08 토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1:10-12, 18-25

10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언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11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그 후의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12 신언자들은 자신들이 전파한 이러한 것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얻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보내어지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를 갈망합니다.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험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흄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20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22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2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라 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 장 16 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한다. … 그의 두서신서에서 베드로는 창세전 영원 과거부터(벧전 1:2, 20) 영원 미래의 새 하늘들과 새 땅까지(벧후 3:13)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다. 그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신언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전파했던(벧전 1:10-12)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밝히고 있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1) 삼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안에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벧전 1:1-2, 2:9), 그들을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벧전 5:10, 벧후 1:3).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신(벧전 1:20) 분으로서, 대속하는 죽음(2:24, 3:18)과 생명 안에서의 부활과 능력 안에서의 승천을 통하여(1:3, 3:21-22)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1:18-19, 2). 그 영은 하늘에서부터 보내지시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벧전 1:2, 12, 22, 4:14). (천사들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를 갈망한다—1:12).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벧전 1:5),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벧후 1:3-4).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치적인 심판들로(벧전 1:17, 2:23, 4:5-6, 17, 벧후 2:3-4, 9, 3:7)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벧전 5:6), 모든

은혜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10 절). 주님은 그분의 백성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려고 그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신다 (벧후 3:9, 15).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벧전 1:5, 7-9, 13, 4:13, 5:4).

(2) 믿는 이들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 받았고 (벧전 1:1-2, 2:9), 그분의 영광과 미덕으로 부름받았으며(벧전 2:9, 3:9, 벧후 1:3, 1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벧전 1:18-19),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3, 23 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3:21).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벧전 1:5), 정결하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22 절),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써 자라고 있고(2:2), 생명 안에서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벧후 1:5-8), 변화되고 건축되어 영적인 집,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어 가고 있다(벧전 2:4-5, 9). 믿는 이들은 그분의 미덕들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고, 왕들이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으로서(벧전 2:9) 그분의 통치적인 심판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1:17, 2:19-21, 3:9, 14, 17, 4:6, 12-19, 5:6, 9),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1:15, 2:12, 3:1-2). 또한 그들은 (본을 보이는 장로들의 목양 아래서, 벧전 5:1-4)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은사를

공급하고 있다(4:10-11). 믿는 이들은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넉넉하게 주어지도록(벧후 1:11)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재촉하고 있다(벧전 1:13, 벧후 3:12).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은 영원 안에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으며(벧후 3:13),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자라고 있다(벧후 3:18).

(3) 사탄의 측면에서: 사탄은 믿는 이들의 대적, 마귀로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벧전 5:8).

(4) 우주의 측면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벧후 2:4). 경건하지 않았던 옛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고(벧후 2:5, 3:6), 경건하지 않았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다(2:6).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조통하는 이단적인 사람들과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는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벧후 2:1, 3, 9-10, 12, 3:3-4, 7, 벧전 4:5). 하늘들과 땅은 타버릴 것이고(벧후 3:7, 10, 11), 죽은 사람들과 귀신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벧전 4:5). 그다음에 새로운 우주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거할것이다(벧후 3:13).(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12-11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3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18장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찬송: 608 (英) 참 기묘해 (中:447)

1 참 기묘해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나 본질 한
영이실세

영광일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 되셔

(후렴)

삼일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참 기묘한 자랑일세
신성의 성분 쓰고도 남네 높고 귀한 영광일세.

2 참 풍성해 성부는 모든 근원 모든 것 주셔
누리게 하네

아 복되네 다함이 없는 뜻을 끝없이 써도
여전히 남네

3 참 기묘해 성부 표현인 아들 육신 안에
인류와 동거해

참 놀라운 십자가 구속으로 죄인들이 주와
하나 되네

4 참 기묘해 아들의 변형인 영 우리 영에 와
생명 공급돼

기쁨일세 영과 영 연합하여 두 영이 한 영 되어
접촉해

5 참 실재세 하나님 모든 것이 영 안에 담겨 내
안에 왔네

기이하네 주 우리와 하나 돼 그 생명 성품
떠나지 않네

생각합니다.

14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 주신 대로,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 나는 더욱 힘써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6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
주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한 것입니다.

17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18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19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20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09 주일

아침의 누림

벧후 1:12-21

12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13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을 동안, 일깨워
줌으로써 여러분을 분발시키는 것이 옳다고